



◇ 지원스님

# “대중가슴 적시는 불음가요”

## 누구나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불교사상 심취



◇ 지원스님

### 지원스님 남국인 진승남씨 ‘큰사랑’ 곧 발표 김태곤씨 경쾌한 멜로디 ‘야단법석’ 준비

수덕사의 여승, 송학사, 타타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남이시여, 탁발승의 노래... 이 곡들은 크게 히트한 노래 이면서 아직도 사람들 입에 붙어지고 있는 불교 소재의 대중가요. 불교를 널리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한 여러 방편중 노래만큼 광범위하게, 또 쉽게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방편도 드물다. ‘찬불가’ 하면 엄숙하고 재미가 적으며, 불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선입견이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배제시키고 보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불교 대중가요, 즉 불음가요의 확산을 꾀는다. “현대는 매스컴시대입니다. 우리 불교계에도 불교방송 불

교TV가 있고 현재 각 민방과 30여개의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편중 하나가 불음가요의 보급입니다.” “큰사랑”이란 타이틀로 이달 중순 불음가요 CD와 테이프를 낼 예정인 지원스님(삼보사 주지), ‘효’를 주제로 해 스님이 직접 작사했고 ‘신사동 그사랑’ ‘비내리는 영동고’ 등 트로트 가요의 황제로 불리는 작곡가 남국인씨가 작곡을, 불자 가수 진승남씨가 노래를 맡았다. 지원스님은 모든것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현대에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만큼 실효 있고 호응이 좋은 방편도 드물다는 생각으로 불음가요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곤씨도 이달말 ‘나무속 가모나불’ 등 기존에 크게 호응을 받은 곡과 신곡 등을 합쳐 ‘야단법석 불음가요’ 카세트 테이프를 낸다. 운전하면서 흥얼거릴수 있고 손책치면서 부를수 있는 가요를 통해서 부처님말씀을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한다는 김씨는 “불음가요를 통해 불교사상이 없는 일반인에

할 수도 있다”는 스님은 “인간의 불성을 자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진정한 불음가요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진·도신 스님 등 노래로 포교하는 스님들이 국악과 접목된 불음가요 음반을 내며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좁혀놓으며 불음가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불음보급회’를 통해 불교음악을 확산시킨 조영근씨, 가사를 바꾼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를 유행시킨 송준희씨 등도 불음가요 확산의 공로자이다. 불미할수록 생각해 하는 불교사상이 담긴 가사, 쉽게 안 잊혀지는 좋은 멜로디 등을 갖춘 불음가요가 크게 히트해 ‘일등 포교사’가 될 날은 언제일까. 이경숙 기자



◇ 진승남씨



◇ 김태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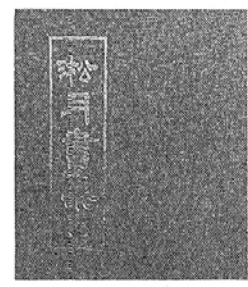
## 수안스님 선서화 ‘자비나들이’

### 대만서 장애인어린이들기 특별전

각 불사 및 불우이웃을 위한 가급미전에서 작품을 쾌척해온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 주지)이 바다를 건너 자비행을 펼친다. 대만 신체장애자 어린이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특별전이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타이페이시 태평양기금회관에서 개최된다. 문수·보현 등자, 소나무, 학 등 십장생을 주요소재로 한 이번 전시에는 스님의 선서화 50여 작품이 전시된다. 수안스님은 “세계적으로 선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양화 특히 선화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하다”며 “한점 한점 기도로 그려진 작품들이 대만의 신체장애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 수안스님



40여년을 서화로서 수행의 방편을 삼아온 송월스님(해인

## 송월스님 서화수행 40년 칠순기념 작품집 출간

사)이 칠순기념 서화집을 펴냈다. 글씨와 사군자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스님은 그간 개인전 9회, 한국서화기원회 등 각종 초대전 등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서 서화 2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송월서화집>은 상권은 각 휘호 및 현역서를 모은 서집(書集), 하권은 사군자 연꽃 달마등 그림을 모은 화집(畵集)이다. 이번 서화집은 스님의 수십년간 정진해온 수행의 결정체라 할 만큼 평생의 대표작들을 모았다.



◇ 지난해 5월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된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모습.

## “동심에 비친 부처님세계는...”

### 5월5일 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 월간 ‘불광’ 주최... 목아불교박물관서

어린이날과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처님그리기대회가 펼쳐진다.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될 그리기대회는 올해가 두번째로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와 인솔교사, 부모 등 1천 5백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보는 부처님의 모습을 화

을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교 어린이 행사가 드문 교계현실에서 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와 어린이들의 미술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회 대회때 참가했지만 입상 못해 아쉬웠다는 박정인 양(서울 중경초등학교 3년)은 “절에 갈 때마다 부처님을 유심히 살펴 보게 되고 그동안 그리기습을 많이 해왔다”며 “올해도 꼭 그리기대회에 참가해 부처님 모습을 잘 그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가문의 (02)420-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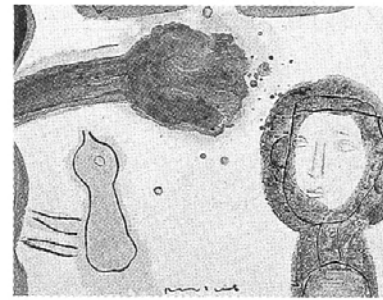
## 문화소식

### 최규일 전각·도각전

전각가 최규일씨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전시장에서 열 한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각작품뿐 아니라 최규일씨가 직접 전시장에서 전각과 도각 그리고 목(墨)드로잉의 작업실 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다.

### 이목일 기획초대전

꽃, 새, 해, 달, 동물, 물고기 등 한국적인 풍토성을 바탕으로 ‘향수’와 ‘그리움’을 형상화해온 이목일씨가 인사동 갤



러리 서호에서 기획초대전을 갖고 있다. 오는 6일까지 갖는 초대전에는 ‘아반상경’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제와 같다’ 등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사랑 정 그리움 순수성 등 우리주변에서 잊혀져가는 여러가지 기억들을 따뜻하게 그려낸 5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 ◇ 이목일 작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제와 같다’

### 선운사로 문학기행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은 문학의 해를 맞아 매월 한차례씩 유명문학작품의 고향을 찾는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행사를 갖는다. 제1차는 4월 2일 <김마태 신화>의 시인 서정주의 생가와 고향 선운사를 찾는다. 동백꽃이 흐드러질 남부선운사로의 문학기행의 인솔은 김재일씨가 맡는다. 한편 제2차 문학기행은 5월 7일 조병화시인의 <밤의 이야기> 무대인 경기안성과 칠정사에서 갖는다. 참가비 2만8천원. (02) 712-5812

### 목아박물관 문화학교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여주지역에서 문체부가 지정된 문화교육의 장인 목아박물관 문화학교는 △한국의 불탑

(정영호) △고려불화(홍운식) △판문대장경(김삼영) △미안마의 불교(윤영수) △불교목공예(박찬수) 등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의 불교미술과 문화재 등에 관한 알찬 강의로 꾸며진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유적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백제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도 갖는다. 강의 시간 매주 토요일 2~4시. 문의 (0337)85-9952~4.

### 사진작가 38명 ‘집합’

삼성포토갤러리 개관 1주년 기념 사진전 ‘사진은 사진이다’에 불자 작가 육명식 조문호 홍순태씨를 비롯 다양한 연령층의 사진작가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02)528-6615.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학 · 연대학 · 세계학 (주)현대불교신문사 (대)737-8881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찾아오시는 길: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전주 - 광주 -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5) 33-2900, 0303 32-0652, 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